

고소설 속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숙향전〉을 중심 사례로 하여

이해진**

〈차례〉

1. 서론
2. 고소설에서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 방식
3.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가 갖는 의의와 한계
4. 결론

〈국문초록〉

소설은 그 내외부에서 공감(empathy)의 형성을 중요한 추동력으로 삼는 장르다. 이 글에서는 고소설에서 고통이 형상화되는 방식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인물의 고통과 그에 대한 공감이 신체적 차원에서 형상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인간의 신체는 ‘유한함’과 ‘취약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능동적 행위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신체의 이중적 속성이야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을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주체어로 삼은 ‘신체적 공감(body empathy)’은 신체를 매개로 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의식을 함께 느끼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은 인물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다른 인물이나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17세기 후반경

* 이 논문은 2025년 2월 1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129차 동계학술대회(“물질로서의 인간과 감정,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장에서 토론을 통해 본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한정미 선생님, 조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논문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강사

에 창작된 <숙향전>을 필두로 하여 조선후기 대중들이 향유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짐이 확인된다.

이에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고소설 속 인물의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숙향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같은 창작 시기를 공유하는 <소현성록>, 애정소설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후대 작품 <숙영낭자전>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가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고소설이 당대 독자들과 공감을 형성해 낸 하나의 주요한 방식을 해명하는 한편, 신체적 공감이 서사에 활용될 때 어떠한 잠재력을 갖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으로 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함께 얻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제어 신체적 공감, 취약성, 행위성, 상호연결성, <숙향전>, <숙영낭자전>, <소현성록>

1. 서론

‘공감(empathy)’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인류의 가장 오랜 자산이면서도, 친소관계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편파성으로 인해 그 구원투수로서 ‘이성(reason)’의 보완을 요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¹⁾ 특히 데카르트 이래 근대적 사유에서는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타 존재들과 구별지어주는 핵심요소로 파악하며, 감성이나 감정은 주로 제어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감정이 이성을 이 끌거나 보완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재발견되고, 감정과 이성이 명백히 갈리는 것 또한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²⁾ 사실

1) 김기현, 『인간다움: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3가지 기준』, 21세기북스, 2023, 11쪽; 46~47쪽.

2) 이렇게 감정의 속성과 역할을 재발견한 최근의 흐름에는 철학, 심리학 외에도 신경과

이러한 변화된 인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타인의 ‘감정(정서)’뿐 아니라 ‘생각(의견,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소설은 그 안의 인물들은 물론, 소설 밖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공감(대)형성을 매개로 하여 서사가 추동되는 대표적 문학 장르다.³⁾ 그러나 인물, 사건, 행위에 대한 공감의 형성은 소설의 창작과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여기서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 의견, 주장을 공유하는 것’, 더 나아가 ‘타인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으로,⁴⁾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공존하고 공생하는 전략이 되어준다. 특히 공감은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결여, 갈등 상태나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

학(뇌과학, 인지과학 등)의 공로가 크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 방면의 선편을 잡은 신경과학자이자 의학자다. 그는 감정과 느낌이 이성과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감정과 느낌이 때로 이성 전략을 이끌 뿐 아니라, 이성 전략이 형성된 후에도 효과적인 이성의 배치는 상당 부분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오류는 무엇보다 마음, 정신, 영혼을 탈육체화하여 생각한 데 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민 옮김, 『데카르트의 오류: 감정, 이성 그리고 뇌』, 눈출판그룹, 2017, 18쪽; 363~36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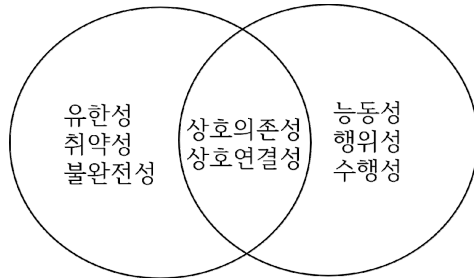
- 3) 넓게 보면 문학 자체가 공감으로 추동되는 장르이기도 하다. 황혜진은 예술로서 문학 작품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수용자의 공감과 연민이며, 이는 가상 인물뿐 아니라 현실의 인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감정이자 능력이기며, 예술교육의 목표이자 나아가 시민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황혜진,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내용 - 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62~63쪽). 또한 한지원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학은 공감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하면서 세대를 이어 후대에 전승된다는 점을 들어 인간에게 문학이 필요한 이유와 그 속에 내포된 공감에 주목할 필요성을 설명한다(한지원,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난 지배자의 공감의 양상과 인간학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6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301쪽).
- 4)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사이먼 배런코언은 공감이란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에는 ‘인식’과 그에 대한 ‘반응’이 모두 필요하다. 사이먼 배런코언, 홍승효 옮김, 『공감 제로: 분노와 폭력, 사이코패스의 뇌 과학』, 사이언스북스, 2013, 32~33쪽.

에 대해 활성화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는 특징이 있다.⁵⁾

이 글에서는 이같은 공감의 문제에 주목하여, 고소설에서 공감이 형상화 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의 분류가능한 하위 유형들⁶⁾ 중에서 특히 ‘신체적 공감’을 초점화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인간이 기계와 같은 사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유한하고 취약한 ‘신체(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고, 우리가 타자를 인식하며 그와 소통하는 것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체(또는 신체에 기반한 감각)를 통해 이루어진다.⁷⁾ 물론 기계나 사물 또한 부서지거나 망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유한하고 취약한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생명체로서 인간 신체가 갖는 유한함, 취약성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전제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인간의 신체는 그러한 ‘유한함’과 ‘취약성’의 조건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살아 있는 물질로서 ‘능동적인 행위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최근의 이론들에서는 강조한다.⁸⁾ 이러한 신체의 이중적 속성⁹⁾이야말로 신체들

-
- 5) 사이먼 배런코언은 공감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중 하나”임을 주장한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 각종 산업이나 법체계와 달리 공감은 “무료”이며, 종교와 달리 공감은 “정의상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이먼 배런코언(2013), 위의 책, 219~223쪽.
- 6) 공감을 ‘심리학적 공감’과 ‘신체적 공감’으로 나누거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누는 등, 공감에 대해 여러 하위 유형화가 가능하다. 엄다경은 최근의 인지신경과학에서 ‘신체적·운동적 공감’을 공감의 주요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엄다경, 「의료인-환자 관계에서 신체적 공감」, 『철학논집』 76,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4, 231~232쪽; 241쪽 참조.
- 7) 강미라는 단적으로 “타인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나의 시선 앞에 출현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순수한·고차원적·반성적 의식 등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의식들조차도 “일종의 신체적 활동이며 동시에 몸의 경험에 근거해야만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강미라,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는가?: 메트로폰티의 대답」, 『해석학연구』 36, 한국해석학회, 2015, 35쪽; 40쪽.
- 8) 신유물론(new materialism)에서는 인간의 신체 또한 ‘물질’로 이해하며 그러한 물질이 지닌 ‘힘(생기, 활력)’을 중시한다. 그런데 이는 이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신체의 역량(능동적 행위성)을 주목하여 그 지위를 복원시킨 결과이지, 신체가 갖는 유한함, 취약성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심귀연은 “몸은 나와 타자들, 자연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수반·요청하면서 공감을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이 글의 논의 전제이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신체가 갖는 이중적 속성

‘신체적 공감(body empathy)’이란 본래 “‘지각과 ‘몸’의 문제를 중심으로 존재를 재해석하는”¹⁰⁾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에 바탕하여 논의되는 개

과 문화,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얽힌 행위적 실재이며, 윤리와 정치의 근원”임을 말하면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고, “몸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59~160쪽). 한편, 정동 이론(affect theory) 또한 신체의 활동성에 주목하면서도, 신체의 의존성을 인정한다. ‘정동’은 어떤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와 달리, 마주침, 공명 등을 통한 신체의 변용 능력을 강조하는데, 박언주는 그러한 ‘정동적 상태를 공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호정동성’ 개념을 통해 “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은 새로운 인간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박언주, 『인간 존엄의 조건으로서 상호의존과 연결성』,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 연구소,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산지니, 2021, 38~39쪽).

- 9) 김현의 경우, ‘의존성 또는 취약성’과 함께 ‘외부를 향한 개방성’을 신체의 이중적 속성으로 설명한다. 김현, 『평등한 몸들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신체 의존성과 돌봄공동체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138~146쪽.
- 10) 심귀연, 『내 머리말의 사유: 초심자도 알기 쉬운 현상학 개념 읽기』, 경상국립대학교 출판부, 2022, 32쪽.

념인데, 신체현상학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살아 있는 신체로서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 주체 관계’¹¹⁾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체적 공감은 ‘상호신체성’과 ‘상호주관성’에 기반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메를로-퐁티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이 글에서 신체적 공감이라는 말을 차용함으로써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결국 ‘신체’를 기반으로 타자를 지각하고 소통하려 할 때라야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나타내는 표정, 몸짓, 증상, 행동 등이야말로 그의 감정과 의식을 알게 해주는 명백한 지표이고, 그 배경을 함께 더듬어 봄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체적 공감’이라는 용어를 ‘신체를 매개로 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의식을 함께 느끼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리하여 일종의 수행적(performative) 행위로 이해하여 사용할 것이다.

필자가 범박하게 살펴본 바로는, 같은 시기에 향유된 고소설이더라도 신체적 공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 예컨대 비슷한 17세기 후반경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되면서 작자미상 소설이기도 한 <숙향전>과 <소현성록>을 상호 비교해 보면, 국문장편소설로서 그 분량과 서사 편폭이 매우 드넓은 <소현성록>보다 오히려 <숙향전>에서 인물의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대폭 활성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후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이나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영낭자전>, <유충렬전>과 같은 소설을 보면 <숙향전>

11) 염다경(2024), 앞의 논문, 236쪽 참조.

12) 염다경(2024), 위의 논문, 236~243쪽.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상호주관성의 문제는 상호신체성의 문제이다(심귀연(2022), 앞의 책, 162쪽 참조). 상호신체성은 상호몸성, 상호육체성으로도 번역되고 있으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2004, 202쪽과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 세창출판사, 2019, 230쪽에서의 설명이 자세하다.

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공감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¹³⁾ 이렇게 대중이 향유한 고소설들에서 신체적 공감이 형상화되는 양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적극 탐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앞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고소설 속에서 인물의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숙향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필요 시 같은 창작 시기를 공유하는 <소현성록>, 애정소설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후대 작품 <숙영낭자전>과 각각 대조·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가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고소설이 독자들과 공감을 형성해 낸 한 방식을 해명하는 한편, 신체적 공감이 서사에 활용될 때 어떤 잠재력을 갖는지, 이때 우리가 유의

13)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기왕에 <심청전>을 중심으로 ‘공감’, ‘동정’, ‘연민’의 서사라는 점, 그리고 공감, 연민에 대한 훌륭한 교육제제라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최기숙, 「<심청전>의 공감화 맥락: ‘공/사’의 경계 구분과 공생적 공공성」,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454~480쪽; 이지영, 「연민과 공감의 서사로 본 심청전」,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211~228쪽; 황혜진(2018), 앞의 논문, 82~93쪽). 필자는 그러한 공감이 신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주목하는 것인데, 사실 판소리는 연행 과정에서 신체가 미적 경험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이재은, 「판소리 연행의 신체화 과정 연구 - 동초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53쪽), 판소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소설본들에서 신체적 공감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서 <숙영낭자전>이 판소리 열두 바탕 중 하나로 꼽힌 바 있음 역시 부기할 사항이다(정노식 저, 정병현 교주, 『조선창극사』, 태학사, 2015, 54쪽). 한편 <유충렬전>의 경우, 원망,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작품 전반에 충만해 있고 이에 대해 서술자의 탄식이 자주 이루어짐이 지적되었는데(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75~182쪽), 이 작품 또한 큰 인기를 누린 대표 영웅소설로서 시정에서 이야기꾼에 의해 낭독 형태로 널리 향유되었음을 유념해 볼 만하다. 이러한 점들을 언급해두되, 이 글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숙향전>과 그 과정에서 비중 있게 비교를 수행하려는 후대의 <숙영낭자전>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고소설 작품들 속 신체적 공감의 구체적 양상과 의미 분석은 차후의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 또한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고소설에서 고통에 대한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 방식

1) 조건: 무고한 개인의 고난과 신체적 고통 노출

앞서 서론에서 ‘공감’은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공존·공생하는 전략이 되어주며, 결여와 갈등 상태나 고통 등에 대해 활성화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됨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공감’에 대해 ‘신체를 매개로 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의식을 함께 느끼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신체적 공감이 어떻게 형상화 되는가를 살피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신체적 공감을 일으키는 ‘조건’이다. <숙향전>에서는 주인공 숙향의 고난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그려진다. 숙향은 관상가인 왕균의 예언대로 다섯 살에 처음 부모를 잃고 떠돌기 시작하여 열다섯 살이 되기까지 다섯 차례 액운을 겪는데,¹⁴⁾ 이들 고난은 모두 죽음의 위기를 동반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무고한 숙향이 그러한 고난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린다는 점이다. 물론 서사 내부적으로 숙향은 본디 월궁의 선녀(소아)로서 죄를 지어 속계에 적강했기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라는 논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본래 선계의 존재라는 흔적과도 같이 숙향은 이미 어릴 적부터 기골과 자색, 음성이 모두 훌륭하고 행동마저 좀

14) 김수연에 의하면, 조선후기의 사료와 문헌들에서 ‘아동’에 대한 관념은 적어도 15세 이하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가르치고 구휼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창선감의록>에서 15세까지를 ‘동해(童孩)’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한다(김수연, 『조선후기 고소설 속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과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2~13쪽). 이렇게 보면 <숙향전>에서 15세까지의 숙향이 겪는 다섯 번의 액운은 일종의 아동 고난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처럼 아이스럽지 않은 면모를 갖춘 것으로 묘사된다.¹⁵⁾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숙향은 피란 중 자기를 버리려는 부모를 붙잡고 자신도 데려가라고 울부짖는 그저 한 명의 범상한 어린아이인 것도 사실이다.¹⁶⁾ 또한 선계 체험을 통해 전생에서 자신이 선녀였음을 알고난 뒤임에도¹⁷⁾ 간신히 의탁한 장승상대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숙향은 죽으려고 강물에 빠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¹⁸⁾ 이처럼 숙향이 유소년기 동안 자신의 과실 없이 납치, 기아, 수몰, 화재, 투옥과 같은 온갖 혹독한 죽을 고비를 겪는다는 것은 일단 무고한 개인에게 놓인 부정할 수 없는 문제 상황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숙향은 ‘고아’로서 대표적 사회약자이다.

둘째는 고난에서마다 숙향의 신체적 고통이 동반되어 노출된다는 점이다. 유리걸식, 누명, 재난, 옥중고 등의 상황에서 숙향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울고 단인니”, “잔잉히 통곡하니”, “물에 빠져 죽으려 호고 하늘을 부르지져 앙

15) “숙향니 점점 자라 삼세(三歲) 되니 기골(氣骨)이 일월(日月) 갖고 자식(姿色)니 황홀(恍惚)하여 사람니 바로 보지 못호고, 음성(音聲)니 옥저소리 갖으며 호는 일니 아희 갖지 안니하니” <숙향전>, 이상구 옮김, 『원본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20쪽(이하 텍스트 인용 시 작품명, 쪽수만 표기함).

16) “(김전 부처가) 혈일업서 숙향을 도적(盜賊) 중(中)의 발리고 다라나려 하니, 숙향니 저희 모친(母親) 치마를 붓잡고 통곡(痛哭) 왈, “어마야, 나도 함기 가읍사이다. 아바야, 나도 한디 가서이다” 호고 한 손을오는 어뉘 초마를 붓잡고 한 손으로는 아뉘 힐이씩를 더위잡고 희음없시 울고 늦기며 함계만 가자고 인걸(哀乞)호며 보치는 거슬 김전 부처 참아 썩나지 못홀 터니로되” <숙향전>, 23쪽.

17) 숙향이 후두부인, 포진동녀를 만나 선계 체험을 하고 자신이 선계의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데 주목하여, 숙향이 선계와 속계에 동시에 속하면서 그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유기적 형태로 발휘한 능동적 존재라고 본 연구도 있다. 송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숙향의 이중적 정체성과 그 의미」,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93~122쪽.

18) “숙향니 슬픈 마음을 금(禁)치 못호여 한 손의는 김슈건을 꿰고 한 손의 치마를 뷔어 잡고, 옥(玉) 갖튼 귀 밧티 진쥬(眞珠) 갖튼 눈물리 비오듯호며, 인(因)호여 물의 뛰여드니” <숙향전>, 47쪽.

천탄식(仰天歎息) 왈(曰)”, “눈물리 비오듯하며, 인(因)하여 물의 썬여드니”¹⁹⁾와 같은 서술들은 고난에 처한 숙향에게 체현되는 고통과 통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무고한 개인이 고난을 당하여 노출하는 신체적 고통’은 <숙향전>에서 여러 차례 형상화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데(신체적 감각에 기반한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 절에서 논한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소현성록>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양상이다. <소현성록>에서도 신체적 고통(극단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인물에 대한 공감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때 인물의 신체적 고통은 그 자신이 한 행동이나 과실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작중 여러 주체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지는 못한다. 실절(失節)한 소교영의 죽음과 반역(反逆) 혐의를 쓴 소세명의 죽음이 대표적이며,²⁰⁾ 석씨를 소현성의 둘째부인이 되게끔 주선하여 화씨와 불화를 만든 석파의 자책,²¹⁾ 명현공주를 박대하여 일을 키웠으면서도 친정으로 돌아간 형씨를 못잊어 생긴 소운성의 심각한 상사병²²⁾ 등도 그러한 사례들이다.

19) <숙향전>, 25쪽; 46~47쪽.

20) <소현성록> 1권, 40면(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406쪽); <소현성록> 14권, 73면(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4, 소명출판, 2010, 520쪽). <소현성록> 속 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과도한 처벌은 (절개, 충, 가문의 안위 등) 집단적 가치로 인해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66~268쪽.

21) 석파의 자책은 다음과 같이 신체적 고통과 자해 시도를 동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소현성이) 문득 보니 석파 등당의서 발을 굴너 통곡하거늘 (...) 좌우를 도라보와 문왈 석씨피 뉘 상스를 만나 겨시냐”, “폐 시랑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머리를 싱의 게 브드이지 왈 시랑은 폐히 첩을 죽이라 시랑이 만일 죽이디 아니면 첩이 반드시 어당검의 죽이리니 출하리 약이나 먹고 죽으면 나오리라 설파의 싱의 촌 갈홀 뼈혀 스스로 디르고져 하니” <소현성록> 1권, 94~95면(조혜란·정선희 역주(2010), 앞의 책, 431쪽).

22) 소운성의 상사병 역시 신체 차원의 위중한 통증으로 묘사된다: “일로부터 싱의 먹음이

그런데 <숙영낭자전>의 경우는 <숙향전>과 비슷하게 숙영낭자의 신체적 고통을 그려낸다. <숙향전>에서 숙향의 고난이 납치에서부터 투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데 비해, <숙영낭자전>에서 숙영낭자의 고난은 시비 매월의 정절 모해로 시택에 누명을 쓰는 큼직한 하나의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 숙영낭자는 여러 차례 신체적 고통을 노출하는바, 가슴을 두드리고 통곡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결국 신체적 고통의 극단적 표출 형태인 자결에까지 이르는 것²³⁾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무결 무죄한 개인인 숙영낭자의 고통²⁴⁾ 역시 작품 내 여러 존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되어준다. 이제 아래에서는 그러한 무고한 개인에 대한 공감의 방법으로서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다.

2) 방법: 신체적 감각을 동원한 다중의 공감 표출

<숙향전>에서 숙향은 여러 차례 액운을 거치는 동안 후토부인, 화덕진군, 포진동녀, 마고할미와 같은 선계의 존재들, 그리고 그로부터 파견된 청

지향티 못하야 심기 등하나 츠후 부친의 슬핍도 날로 엄하고 형공 방비힘도 어려오니 감히 다시 가디 못하고 식음이 감하며 용피 날노 쇠척혀 월여의 니르러는 문득 팀병하야 상석의 위둔하니 부피 크게 근심하고 가동이 슬난하며 편작의 힘히 진하고 빅취 무효하니 (...) 점점 등하야 이십이 일의 니르러는 아조 곡기를 그츠니” <소현성록> 6권, 84~85면(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2, 소명출판, 2010, 399~400쪽).

23) “낭즈 이 말을 듯고 눈물을 흘려 천만(千萬) 인미(曖昧)흔 말노 발명(發明)하되, 누명(陋名)을 버셔날 길이 업는지라. (...) 가슴을 두다리며 통곡(痛哭)하이”(〈숙영낭자전〉, 이상구 옮김(2010), 앞의 책, 266쪽. 이하 텍스트 인용 시 작품명, 쪽수만 표기함); “세중도(細粧刀) 드는 칼노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더위잡바 죽을까 말까 여러 번 즈져(越越)하다가, 또흔 슬피 울며 (...) 칼을 놓피 드러 가슴을 지로이”(〈숙영낭자전〉, 274쪽)

24) 숙영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천상적 존재이기에 그녀가 받는 잔혹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지적도 이루어진 바 있다. 정인혁, 「고딕'으로서의 숙영 서사 연구」, 『판소리연구』 52, 판소리학회, 2021, 269쪽 참조.

학, 파랑새, 사슴, 청삽사리 등의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다. 그런 다음 나중에는 차례차례 그 은혜를 갚는다. 이는 숙향의 아버지인 김전이 거북을 구해주고 이후 자신도 거북에게 구제받는 작품 서두의 에피소드에서부터 예비되어, <숙향전> 전반에 걸친 ‘시혜-보은’ 구조로 주목되기도 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숙향에 대한 도움이 이루어지기 앞서서, 숙향의 고난이 신체적 차원에서 먼저 노출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존재들의 신체적 감각에 기반한 공감의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 응답하는 ‘행위(실천)’는 그가 놓인 처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선행될 때 촉발됨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러한 공감의 토대로 ‘신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고난을 당하는 숙향의 신체적 고통이 묘사될 때 그에 대해 신체적 감각을 동원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서술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 숙향니 길노 오락가락하며 통곡하야 부모 간 곳들 츠즈나 어디 가 만나리요 울고 단인니 피란(避難)하여 가는 사름드리 보고 다 잔잉히 녀여 눈물 안니 흘이 리 업쩌라. (<숙향전>, 25쪽)

㉡ 이적의 숙향니 부모를 일코 의지(依支)홀 더 업셔, 그 우는 쇼리는 사람의 심신(心身)니 녹을 듯허더라. (<숙향전>, 26쪽)

㉢ “모친(母親)이 니일(來日) 와 달여가마 허더니 오지 안니 허너이다” 하고 통곡허더니, 보는 사람니 눈물 안니 흘일 니 업쩌라. (<숙향전>, 26쪽)

㉣ 한참 통곡하야 슬피 우니, 건곤(乾坤)이 다 슈심(愁心)를 품은 듯하고, 만물초목(萬物草木)과 금슈지물(禽獸之物)니 다 슬허하는 듯허더라. 이렇듯 이곡(哀哭)하니, 길 가는 횡인(行人)들이 길을 가지 못하고 다 눈물을 뿌리며 잔잉히 너기더라. (<숙향전>, 46~47쪽)

㉤ 옥(玉) 갖튼 귀 밋터 진쥬(眞珠) 갖튼 눈물리 비오듯 하며, 인(因)하여 물의 썬여드니, 산천초목(山川草木)이 일시(一時)에 앓츠 하고 놀나는 듯하며, 물결니 뒤누어 쓸는 듯하니, 길 가는 사람들리 놀라 구(求)코자 허나 밋지

못허더라. (<숙향전>, 47쪽)

㉞ 낭지 잔약(孱弱)흔 몸의 큰칼을 메고 옥(玉) 갖튼 귀 밧터 진주(眞珠) 갖튼 눈물을 흘리고 사람에게 붓뜰여 드러오니, 상하(上下) 관속들리 보고 안니 울 리 업쩌라. (<숙향전>, 115쪽)

㉟ “...숙향아, 심홀샤 팔지(八字)야. 천하(天下 |) 비록 크다 허건만은 죠고만 일신(一身)이 의탁홀 고지 업도다. 살아싱전(生前)의 니랑(李郎)를 기다릴 길 업스니 지하(地下)에 가도 눈을 감지 못허리로다” 헛뜨려라. 싱(生)니 간필(看筆)의 쥬근 줄 알고, ‘닝지(娘子 |) 의탁홀 고지 업셔 죽으리로다.’ 허고 우다가 제 밥을 먹인 후 서찰(書札)를 개 목의 걸고 (<숙향전>, 129쪽)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숙향이 각종 고비 속에서 신체적 고통을 표출할 때 매우 다양한 존재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 공감에는 모두 신체적 감각이 적극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관속들 같은 주변적 인물부터 숙향의 연인인 이선에 이르기까지 작품 내부의 인물들(㉞,㉟,㊱,㊲,㊳)은 물론이고, 서술자(㉜)와 자연물(㉝,㉞) 역시도 숙향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그 공감의 방식은 슬픔, 눈물 흘림, 울음, 놀람 등의 신체적 반응을 토대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때로 ㉞에서 보듯 숙향을 구하려는 행위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숙영낭자전>에서도 발견되는데,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숙영낭자전>에서 숙영낭자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통곡할 때에는 “어덕[언덕]의 고목(枯木)이 썩을 니고 귀신(鬼神)이 설어하니, 엇지 천지(天地)들 울고져 안니허리오? 보는 스람니 도라셔 치슈린니, 미월 돌쇠 이외(以外)야 어니 슝 안이 울이 업셔”²⁵⁾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숙영낭자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그녀를 포함한 매향과 돌쇠 제외)은 물론이고, 고목, 귀신, 천지도 신체적 공

25) <숙영낭자전>, 266쪽.

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숙영낭자가 자결하려 할 때에는 시어머니 정씨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남편을 만류하고 “낭자의 손을 잡고 누출 한대 더이고 통곡(痛哭)”하면서 그녀의 억울함에 공감을 표하는 서술이 나온다.²⁶⁾ 서사 내부의 주요 인물이 보여주는 신체적 공감이다. 한편,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보류하다가도 결국 숙영낭자가 자결에 이르는 장면에서는 “청천벽일(青天白日)의 우르르 하고 뇌성(雷聲) 천지(天地) 진동(振動)하거늘”²⁷⁾이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역시 인물이 다다른 극한의 신체적 고난에 대해 자연물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대목이다. 끝으로 과거금제 후 집에 돌아와 숙영낭자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백선군이 장례를 치르면서 “대성통곡(大聲痛哭)하며 물을 향(向)하여 무수(無數)이 탄식(歎息)하고 제문(祭文) 지어 제(祭)할” 때 “엎더져 무수(無數)이 통곡(痛哭)하이, 초목금슈(草木禽獸) 다 우난 듯하고 산천(山川)이 문혀지고져 하더이”라는 서술이 나온다.²⁸⁾ 숙영낭자의 배필인 선군이 먼저 숙영낭자의 죽음에 대해 신체적 공감을 표하고, 그러한 선군의 모습에 다시금 자연 또한 공감을 표하는 양상이다.

위와 같이 <숙향전>과 <숙영낭자전>에서 산천초목, 금수, 천지, 일월, 천둥 번개 등 여러 자연물까지도 인물의 고통에 감응해 눈물 흘리고, 놀라며, 뒤눕고, 무너지는 등의 신체적 감각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 모두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행위성’을 갖춘 존재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특히 <숙향전>에서 숙향이 장승상 부인, 학, 파랑새, 삼사리 등에서 도움 받고 또 그들에게 하나하나 보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단지 시혜-보은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모두 살아 있는 생명으

26) <숙영낭자전>, 269쪽.

27) <숙영낭자전>, 274쪽.

28) <숙영낭자전>, 299~300쪽.

로서, 상호 간에 적극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그 능동적 역량이 충분하게 존중될 때 비로소 공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통찰을 함축하고 있다.²⁹⁾

3) 결과: 고통의 나눠 짐을 통한 살림의 효과 창출

앞서 살핀대로 무고한 개인의 고난이 신체적 고통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에 대해 신체적 감각을 동원한 공감이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러한 신체적 공감은 일견 물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나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고소설 내에서 활성화되는 신체적 공감이 서론에 전제된 대로 수행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하려 한다.

<숙향전> 속 숙향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여러 주체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는 숙향의 연인 이선이다. 이선은 이화정에서 마고할미로부터 숙향이 부모를 잃고 고난을 겪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 팔을 잃고 두 눈이 멀며 한쪽 다리를 절고 두 귀마저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물론 이렇게 숙향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마고할미가 이선을 시험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지만, 이선은 숙향과의 인연을 굳게 믿으며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인다.³⁰⁾ 그리고 이것은 향후 이선이 지속적으로 숙향의 고통을 상상하며 그에 공감을 이어가는 행위와도 연결된다.

“니 부귀(富貴)를 닳바 호으며 비필(配匹)을 못 어더 호미 안니오라, 전성(前身) 일를 모를 제는 무심(無心)호더니, 아온 후는 숙향을 위하야 침식(寢食)니

29) <숙향전>을 애정소설, 환상소설 등으로서만이 아닌 생태(주의)적 텍스트로서 이해하였던 논의들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61~89쪽; 엄태식, 「<숙향전>의 생태주의적 독해」,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2021, 7~39쪽 참조.

30) “인년(因緣)니 중(重)호면 엇지 빈부(貧富)를 갈피며, 설스 병인(病人)인들 엇지호리잇가?” <숙향전>, 90쪽.

불안(不安)하고, 또 날로 하여곰 인간(人間)의 날려와 병인(病人)니 되어 고행(苦行)를 지닌다 하오니, 너 간장(肝腸)니 비록 철석(鐵石)인들 엇지 잔잉치 안니하리오? 숙향을 못 만나면 결단코 인간(人間)이셔 잔명(殘命)를 부지(扶支)치 못하리로쇼이다.”³¹⁾

위에 인용한 이선의 말 속에는 숙향이 겪은 지난 날의 고난, 그리고 그녀가 현재 당면해 있을 고통에 대해 이선이 상상하고 신체적 감각으로써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숙향을 떠올릴 때 자신 역시 먹고자는 것이 편치 않으며, 더욱이 숙향이 심각한 장애로 고통받다는 생각에 이르면 간장이 탄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선은 이후에도 숙향의 편지에 울며 극진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고, 숙향을 찾아다니는 여정에서 그녀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함께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이선은 숙향이 죽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한바탕 통곡을 하고 집에 이르는데, 비로소 그때 고모 여부인에 의해 이선과 숙향의 재회가 성사된다. 이는 바로 고통을 함께 감각하는 신체적 공감이 가져다주는 ‘살림’의 효과를 극적으로 형상화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디 천상의 존재들로서 이선과 숙향의 재회는 분명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숙향을 찾아다니는 여정에서 끊임없이 그녀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하려 한 이선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한 것이다.

함께 짊어볼 것은, 앞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공감이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소현성록>의 경우에도 소운성의 상사병에 대해 모친 석부인이 그의 생명의 위급함을 보고 함께 이픔을 겪는 모습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형씨를 데려오면 안된다는) 소현성의 굳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부인과 태부인의 마음을 움직여 형씨가 소부로 복귀해 소운성의 병이 낫게끔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³²⁾ 그런 점에서 고소설에서 신체적

31) <숙향전>, 103~104쪽.

공감은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체’에 기반한 감각 공유를 토대로 곤경에 처한 인물의 삶을 지속시키는 한편, 인물들이 공생하도록 하는 기틀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숙영남자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숙영남자전>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기실 <숙향전>에서 이선이 숙향과 살아서 재회한 것과 달리, <숙영남자전>에서의 백선군은 숙영남자가 자결한 뒤에 야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시신을 마주하는 비극을 겪는다. 시신을 수습할 때에는 백방으로 영혼을 달래도 숙영남자의 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가 하면, 안장할 때에는 사방에 뇌성벽력이 일어나며 구름이 옥연동을 둘러싸고 순식간에 큰연못이 가득 차 넘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㉑ 할임(翰林)니 대성통곡(大聲痛哭) 하며 물을 향(向)하여 무수(無數)이 탄식(歎息)하고 제문(祭文) 지어 제(祭)할 식, “유세즈(維歲次), 모연(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의 할임(翰林) 백선군(白仙君)은 감소고우(敢昭告于) 옥낭즈(玉娘子) 실령지하(神靈之下)하느이다. 삼식연분(三生緣分)으로 그대를 만나 위낭비취지낙(鴛鴦翡翠之樂)을 백연히로(百年偕老)할가 바라던이, 인간(人間)니 시귀(猜忌)하고 귀신(鬼神)이 작희(作戲)하여 낭즈(娘子)로 더 부러 누월(累月)을 남북(南北)의 같이여던니, ㉒ 천만(千萬) 익미지스(曖昧之事)로 구천(九泉)의 외로운 혼빅(魂魄)이 되어신니, 엇지 슬푸지 안이허리요? 이달다! 낭즈는 세상만스(世上萬事)을 바리고 구천(九泉)의 도아가건이와, 선군은 어린 춘양 동춘을 다리고 뉘을 미더 살꼬? 슬푸다! 낭즈의 신체(身體)을 압 동산의 무더쥬고 무덤이느 보즈 하였던니, 낭즈의 옥체(玉體)을 물속의 너허신이 황천(黃泉) 타일(他日)의 무삼 면목(面目)으로 낭즈를 디면(對面)허리요? 비록 유명(幽明)이 다르나 인정(人情)은 여상여희(如常如喜)하니 흥 번 다시 만는 상봉(相逢)허물 천만(千萬) 바라난이다. 흥 일빅(一杯) 청작(淸酌)을 드리온니 복감(服感)허웁쇼셔” ㉑’ 하며 엷더져 무수(無數)이 통곡(痛哭)허

32) <소현성록> 6권, 117~118면(정선희 역주(2010), 앞의 책, 413쪽).

이, ㉔초목금슈(草木禽獸) 다 우난 듯하고 산천(山川)이 문혀지고져 흐더이, <이>옥혀여 또 노성이 이러나며 옥당수(玉塘水) 쓸난 듯하더니 물결이 같느지며 ㉕이옥혀여 낭즈(娘子) 칠보단장(七寶丹粧)의 노의홍상(綠衣紅裳)을 갖초오고 청스즈(靑獅子) 혼 쌍(雙)을 물고 와연(宛然)니 나오거늘³³⁾

바로 이때 백선군은 위와 같이 숙영낭자의 시신 앞에서 큰소리로 무수히 통곡(㉔, ㉕)하고 제문을 읽으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내용에 슬픔으로 공감(㉖)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초목금슈와 산천도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㉔). 이는 비록 사후(死後)이기는 하지만 숙영낭자에 대한 진실한 공감이 선군과 자연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결과, 기적처럼 숙영낭자는 연못의 물결을 가르며 칠보단장의 녹의홍상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난다(㉕). 이로써 성사되는 선군과 숙영낭자의 재회 역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감각하는 데서 추구된 문학적 차원의 ‘되살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신체적 공감은 분명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수행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의 횡포 속에서 고난을 겪는 인물을 향해 다양한 존재들(인물, 자연,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감각을 동원한 공감의 서술들은 단지 해당 인물의 고난을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살아 있는 신체가 갖는 능동적 행위성, 그리고 신체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 상호연결성을 바탕으로 하여 세상의 폭력, 부조리에 대응하는 연대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33) <숙영낭자전>, 299~300쪽.

3.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가 갖는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숙향전>을 중심 사례로 하여 논의한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 양상에 대해 정리해 보자. 신체적 공감은 주로 개인이 겪는 고난 중에서도 신체적 고통을 대상으로 하며, 대개 주인공을 향한 것이었다. 숙향은 비록 전생의 죄로 선계에서 속계로 내려와 고난을 겪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숙향이 피란 중 고아가 되는 데서 시작되는 일련의 고난들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 의지나 과실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재난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고통을 겪는 숙향에게는 길을 지나던 행인들, 이선, 자연물, 서술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체적 공감이 이루어졌다. 숙향은 여러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사실 그 바탕이 되어준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신체적 공감의 표출이고, 이는 고통의 나뉘짐을 통한 살림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에 대해 서사 내적 논리를 넘어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심화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고소설의 당대성과 현재성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신체적 공감의 활용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주목해 볼 부분은 ‘무고한’ 개인에 해당하는 인물에게만 신체적 고통과 그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활발하게 일어날 뿐, 악인에 대해서는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소설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공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직관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³⁴⁾ 그 예로 <숙향전>에서 시비 사항이 천벌을 받아 죽는

34) 공감과 연민(compassion)을 구별하면서 예술교육이 공감을 넘어 연민으로 나아가야 함에 대해 논한 선행 연구를 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황혜진은 “연민은 공감을 포괄하지만 공감을 넘어 가치 판단의 인지적 요소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제거하려는 실천성을 갖는다”는 점을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황혜진(2018), 앞의 논문, 66쪽). 다만 사이먼 배런코언에 따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

순간에 대한 묘사를 보면, “문득 공중(空中)의서 동희 갓튼 불덩니 날리 다르며 바로 사향의 더굴리를 썬치니, 승상 부처와 일가(一家) 상해(上下) |) 다 정신(精神)을 일코 괴절(氣絶) 호여싸가, 울리게야 계유 정신을 차려”³⁵⁾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사향에 가해지는 신체적 응징과 관련해 그 어떤 당사자의 신체적 고통도, 그에 대한 공감적 서술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향이 숙향에게 갓은 누명을 씌워서 고난에 빠뜨린 간교한 인간이라는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양상은 숙영낭자를 모해한 <숙영낭자전>의 매월, 돌쇠의 처벌 장면에서도 나타난다.³⁶⁾ 그렇다면 고소설에서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는 ‘공감은 감성의 영역이고 이성과는 분리된다’는 근대적 편견과는 애초에 거리를 두며, 공감은 이성과 감성이 서로 얽혀 작동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의의가 있다. 다만, <유충렬전>과 같은 작품까지를 함께 떠올려 보면, 역적 정한담의 시신이 장안에 전시되고 못 사람들이 그의 간을 꺼내어 씹고 살을 베어먹는 장면의 경우, 악인에게 신체적 공감이 작동하지 않음을 넘어 오히려 신체적 폭력을 지지하는 정반대 방향성을 띠고 있기에, 고소설 속 공감이 편파성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통과 통증은 오직 개인적인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속한 문화와 사회와 역사의 층위에서 상연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

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그것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 역시 요구” 한다(사이먼 배런코언(2013), 앞의 책, 33쪽). 이 점에서 공감 자체에도 일정한 대응력(행동력)이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신체적 공감이 수행적 힘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 이유이기도 하다.

35) <숙향전>, 58쪽.

36) 다음과 같이 돌쇠와 매월이 징치되며 그에 대한 백선군의 분노의 감정이 표출될 뿐이다: “할임(翰林)니 분(憤) 호물 이기지 못 호여 창두(蒼頭)을 불너 세우고 돌쇠를 박살(搏殺) 호여 죽이고, 할임니 찾던 칼을 빼여들고 누여와 “엇지 너 갓튼 연을 일길(一刻)인들 세상(世上)의 살여두리요?” 호며 띠월의 띠을 질너 헛치며” <숙영낭자전>, 296쪽.

다”³⁷⁾는 관점에 입각해 볼 때도 고소설 속 신체적 고통과 그에 대한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는 의의를 갖는다. 이 글에서 주목한 속향이 겪은 다섯 차례의 고난, 그리고 속영남자가 택한 죽음은 조선후기 사람들이 경험한 전란(戰亂), 신분제도, 정절(貞節) 이데올로기 등에서 파생된 사회 문제들을 환기한다.³⁸⁾ 또한 이때 인물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인물, 자연물, 서술자가 신체적 감각을 동원하여 공감하는 모습은 꼭 수동적 차원의 무력한 대처라고만 할 수 없다.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 신체의 연약함은 부당한 사회적 폭력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잠재적 평등과 살 만한 삶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서로 간 의무의 한 토대”³⁹⁾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신체를 매개로 한 공감은 공동체 성원들이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며 함께 사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게 하는 힘을 예비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후기에 고소설이 낭독(朗讀)을 통한 집단적 독서 형태로도 널리 향유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신체적 공감을 통한 공동체의 연대의식 창출은 더욱 의미가 있다.

끝으로 고소설에서 ‘산천초목과 금수도 슬퍼하였다’, ‘하늘도 눈물을 흘렸다’와 같이 신체적 공감에 자연물이 동원되고 있는 점은 단지 전근대 문학에서 인물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관습화된 수사 장치로만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새롭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본다. 자연에도 감각과 행위성이 있다는 점,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모두 ‘생명’으로서 상호연결되어

37) 이기병, 『연결된 고통: 현대 의학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고유하고 다양한 아픈 몸들의 인류학』, 아문드, 2023, 15쪽.

38) <속영남자전>에서 속영남자의 자살 문제를 조선후기 가족 제도의 모순 속에서 바라본 논의도 있다. 유해인, 「<속영남자전>에 나타난 자살의 의미와 그 사회사적 맥락」,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123~154쪽.

39) 주디스 버틀러, 김용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307쪽.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역으로 고소설 속에서 부당한 상황에 나타나는 자연의 보복 또한 자연의 행위성, 능동성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향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류 역사에서 자연은 점차 인간이 기획,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대상화되어 온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데, 자연의 역습이라 할 만한 다양한 위기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고소설이 인간을 향한 자연의 능동적 행위 능력을 적극 인정하여 활용한 점은 의의가 크다. 다만, 이때 자연을 의인화시키는 방식을 취한 점, 그리고 인간세계를 성찰하기 위하여 자연을 동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만한 소지가 남아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에 근본적 반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또한 인간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인간을 다른 존재들과 구별지어주며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게 했던 이성인 이제 AI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자 능력이라고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AI는 인간이 만들어 냈지만, 인간이 해내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인간을 더욱 이롭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인간 존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인간의 ‘신체(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소외란, 몸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인간 자신이 몸적 존재임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기도”⁴⁰⁾ 하다는 점을 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0) 심귀연(2024), 앞의 책, 112쪽.

이 글은 이러한 신체에 대한 최근의 재주목을 바탕으로 하여 공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 가장 오랜 자산이라면, 그러한 공감 역시 신체에 기반할 때 가장 인간다운 속성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안고 출발했다. 그래서 ‘신체적 공감’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그것이 인물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자주 활성화된다고 판단되는 고소설 <숙향전>을 중심으로, 같은 창작 시기를 공유하는 <소현성록>, 애정소설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는 <숙영낭자전>과 각각 대조·비교를 수행하며 그 양상과 의미를 살폈다. 그리고 신체적 공감이 서사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때 유의해 보아야 할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았다.

이 글에서는 작중에서 신체적 공감이 활발히 나타나고 그 효과가 배가되는 조건으로서 개인이 겪는 ‘무고한 고난’과 그것이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사실 신체적 공감은 슬픔, 고통과 같은 부정적 감정 외에 기쁨,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 활성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 글에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공감이 약화되어 나타난다고 평가했던 <소현성록>의 경우, 인물이 농담을 구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상대방 또는 죄중이 크게 웃고 찬사를 보내는 장면이 종종 발견된다.⁴¹⁾ 인물의 부정적 감정 노출과 그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눈물 흘림, 탄식, 통곡, 자해 등의 즉각적 ‘증상’이나 ‘행동’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감정의 노출과 그에 대한 신체적 공감은 ‘언어’를 수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는 반성적 행위를 토대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반성적인 언어는 즉각적인 증상이나 행동에 비해 때때로 특정 의도 및 왜곡이 개입될 확률 또한 안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⁴²⁾ 이러한

41) <소현성록> 1권, 81~82면(조혜란·정선희 역주(2010), 앞의 책, 425쪽); <소현성록> 10권, 56면(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3, 소명출판, 2010, 562~563쪽) 등. 국문장편소설 속 농담(회언)의 유형과 그 담화적 성격 및 함의에 대해서는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을 대표 사례로 연구한 김현주, 『회학적 대화의 담화 공간의 성격과 함의』, 『시학과 언어학』 24, 시학과언어학회, 2013, 63~83쪽이 참조된다.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고소설 속 신체적 공감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탐구는 좀 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아우르면서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점을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로 언급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42) 생성형 AI도 인간에게 공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언제나 그럴듯한(그러나 꼭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이상구 옮김, 『원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1~336쪽.

이상구 옮김,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1~296쪽.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1~568쪽.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2, 소명출판, 2010, 1~459쪽.

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3, 소명출판, 2010, 1~650쪽.

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4, 소명출판, 2010, 1~567쪽.

2. 논저

강미라, 「우리는 어떻게 공감하는가?: 메를로퐁티의 대답」, 『해석학연구』 36, 한국해석학회, 2015, 31~54쪽.

김기현, 『인간다움: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3가지 기준』, 21세기북스, 2023, 1~340쪽.

김수연, 「조선후기 고소설 속 ‘아동 서사’의 문학적 장면과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8쪽.

김현, 「평등한 몸들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신체 의존성과 돌봄공동체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1,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4, 133~162쪽.

김현주, 「희화적 대화의 담화 공간의 성격과 함의」, 『시학과 언어학』 24, 시학과언어학회, 2013, 63~83쪽.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 연구소,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산지니, 2021, 1~528쪽.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신체현상학』, 세창출판사, 2019, 1~384쪽.

송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숙향의 이중적 정체성과 그 의미」,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93~122쪽.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169~193쪽.

심귀연, 『내 머리말의 사유: 초심자도 알기 쉬운 현상학 개념 읽기』,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2, 1~202쪽.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184쪽.

엄태식, 「〈숙향전〉의 생태주의적 독해」,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2021,

7~39쪽.

- 염다경, 「의료인-환자 관계에서 신체적 공감」, 『철학논집』 76,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4, 231~254쪽.
- 유해인,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자살의 의미와 그 사회사적 맥락」, 『어문연구』 5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4, 123~154쪽.
- 이기대, 「〈숙향전〉에 나타난 생태적 세계관」, 『국제어문』 37, 국제어문학회, 2006, 61~89쪽.
- 이기병, 『연결된 고통: 현대 의학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 고유하고 다양한 아픈 몸들의 인류학』, 아문드, 2023, 1~266쪽.
- 이지영, 「연민과 공감의 서사로 본 심청전」, 『고전문학연구』 52, 한국고전문학회, 2017, 205~233쪽.
- 이채은, 「판소리 연행의 신체화 과정 연구 - 동초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07쪽.
- 정노식 저, 정병현 교수, 『조선창극사』, 태학사, 2015, 1~300쪽.
- 정선희,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쪽.
- 정인혁, 「『고딕』으로서의 숙영 서사 연구」, 『판소리연구』 52, 판소리학회, 2021, 265~305쪽.
- 최기숙, 「〈심청전〉의 공감화 맥락: ‘공/사’의 경계 구분과 공생적 공공성」,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449~485쪽.
- 한지원, 「〈임금 감동시킨 음식〉 설화에 나타난 지배자의 공감의 양상과 인간학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6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291~322쪽.
- 황혜진, 「공감과 연민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내용 - 판소리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61~97쪽.
- 안토니오 다마지오, 김린 옮김, 『데카르트의 오류: 감정, 이성 그리고 뇌』, 눈출판그룹, 2017, 1~433쪽.
-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창비, 2020, 1~356쪽.
-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동문선, 2004, 1~434쪽.
- 사이먼 배런코언, 홍승효 옮김, 『공감 제로: 분노와 폭력, 사이코패스의 뇌 과학』, 사이언스북스, 2013, 1~288쪽.

ABSTRACT

Representation of Body Empathy for Pain in Korean Classical Novels

- Focusing on *Sukhyangjeon* as a primary case

Lee, Hae-jin

Novels are a literary genre that considers the formation of empathy as an important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ng force. This study examines the method and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of body empathy in Korean classical novels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pain of and empathy for characters are embodied at the physical level. The human body has not only “finitude” and “vulnerability” but also has “active agency,” and these dual attributes of the body play a role in provoking empathy between humans and maximizing its effects. The keyword “body empathy” in this study means sharing the feelings or consciousness of others through the body as a medium. Body empathy for the pain of the main character in Korean classical novels appears actively in other characters or the narrator, especially in popular novel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Sukhyangjeon* in the late 17C.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body empathy for a character’s pain is embodied in those novels, focusing on *Sukhyangjeon* and comparing it with *Sohyeonseongrok* and *Sukyeongnangjaejeon* in Chapter 2. Chapter 3 of this study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presentation of body empathy in these novels.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clarifies one of the main methods by which Korean classical novels fostered empathy among readers of that time. Furthermor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gain insight into the potential when body empathy is used in contemporary narratives and what areas we should be aware of.

Key Words body empathy, vulnerability, agency, interconnectivity, *Sukhyangjeon*,
Sukyeongnangjaejeon, *Sohyeonseongrok*

논문투고일: 2025.4.15.

심사완료일: 2025.5.9.

게재확정일: 2025.5.19.